

'순천만 정원' 내달 20일 개장... 손님맞이 바쁘다

각종 시설 보강공사 공정률 80%

주차장 577면으로 늘려 편의 제공

'순천만 정원'이 다음달 20일 정식 개장한다. 순천시는 "삶의 주요한 가치인 '행복 창출'을 테마로 4월 19일 '순천만 정원'개막식을 갖고 이틀만 정식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관리센터 직원 70여명은 '순천만 정원' 개장 붐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조례사에서 길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시는 다음주부터 매주 수요일을 '길거리 홍보 데이'로 지정, 시 산하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출근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순천만정원, 차별화된 모습으로 변모>시는 '순천만 정원'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관람객 관람 동선 및 편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자

원봉사자 및 정원해설사 모집, 시설 보강과 대규모 꽃단지, 나무 보식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날 말을 준공목표로 잡은 각종 시설보강 공사의 공정률은 80% 이상. 남문 광장에서 주 박람회장으로 가는 주요 통로인 '꿈의 다리' 앞에는 도로 입체화 공사가 한창이다. 강변도로 횡단보도 구간의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한국 정원과 수목원 관람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던 후 한국정원앞 교량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했던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 습지와 철쭉원 사이를 잇는 구름다

리 형태의 관람데크(총길이 210m) 공사가 한창이다. <주차장 299면 추가 교통편의 제공>=관람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한창이다. 순천만 정원 동문내 임시시설이었던 실내전 시간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당초 278면이던 주차장은 577면으로 확보하게 돼 관람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동문과 서문에는 온누리 자전거 정류장이 설치된다. 동문 30대·서문 20대를 비치해 자전거 이용 활

성화는 물론 인근 교통체증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수목원 및 습지센터 일원에 각종 수목을 보완 식재해 정원의 경관 향상에 힘썼다. 주요 관람동선에는 꽃피는 관목 및 초화류를 연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완공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완비 등도 함께 차질없이 진행해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예정원 김은종기자 ejkim@

지리산권 방문 활성화 협약

관광개발조합-공원사무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본부장 백영옥)과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2014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발조합과 3곳의 공원사무소는 상호 연계해 ▲'지리산권 방문의 해' 사업 관광 자원 발굴 및 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생태탐방 관광상품 공동 추진 ▲'지리산권 방문의 해'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사업을 벌인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와 공동 협력해 '지리산권 방문의 해' 분위기를 고양시키겠다"며 "향후 지리산권 지역까지 증대를 통한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례=이성구 lsg@



여수에 팬지 활짝 피었습니다

여수시청 직원들이 지난 11일 팬지·금잔화 등 봄꽃을 도로변 화단에 식재하고 있다. 여수시는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에서 겨우내 키운 봄꽃 4종 21만 송이를 시가지 화단에 심을 계획이다. <여수시 제공>

광양시-광양제철-상의, 중기육성 힘 모은다

실무자 워크숍 개최

광양시와 광양제철, 광양 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광양시와 광양제철, 광양 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양제철소 회의실에서 '동반성장 혁신 허브 실무자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광양제철 혁신지원 그룹의 마스터플랜을 공유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혁신추진 방안

대해 토론했다. 광양제철 혁신지원그룹 김희리더는 "연말까지 혁신허브 성공모델을 구축해 2020년까지 기업과 행정기관, 외식업 분야까지 대상을 넓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은 강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광양시·광양 상공회의소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기업과 관공서, 소상공인에게 안전·노동·교육·재무 등 혁신컨설팅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조합원 자녀 54명에 장학금 4600만원

곡성 옥과농협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이 관내 조합원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옥과농협은 지난 11일 옥과·오산·겸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녀 가운데 선발된 고등학생과 대학생 54명에게 총46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시진>

이날 대학생 39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3900만원, 고등학생 15명에게 50만원씩 750만원이 지급됐다. 또 자매결연 기관인 은병원도 대학생 5명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상철 조합장은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경기자 kjkim@



전북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현장체험 각광

지난해 148개 단체

1만4천여명 다녀가

서남권 대표적인 과학관인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청소년들의 현장 체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우주천문대 전체 관람인원 2만 6500여명 가운데 148개 단체 1만 3500여명이 수학여행과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체험 학습의 특성상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성향을 보였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태양·천체관측 ▲4D 영상관람 ▲가상 항공 체험 ▲전시관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대로 운영해 1회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올 상반기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4월 두 달간 총 8회에 걸쳐 남원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천문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중에 전북권



학생을 대상으로 천체관측 대회를 열고, 10월 8일에는 개기월식 공개관측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기부 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청정 한우명품관' 문 열어

12억 들여 2층 규모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에 '청정 한우 명품관'이 12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시작했다. 명품관은 총사업비 12억5000만원(군비 10억·자부담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623㎡·건축면적 392㎡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됐다. 관매장은 공음면 청보리 한우 영농조합법인(대표 이간선)에서 운영

한다. 이간선 대표는 "고창의 농·축·특산물을 활용해 인근 축산농가의 판로가 개척되도록 한우명품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감수 군수는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인근에 위치한 청보리밭 축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농가소득이 늘고, 체류형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북 '농생명 허브도시'로 육성

식품클러스터·민간육종 연구단지 잇단 유치

중자·식품 등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박차

정부가 전북 등 15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전북은 '농생명 허브(Hub)도시'로 육성된다. 이는 지역의 여건 및 비전과 부합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예부터 음식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전북도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를 위한 '식문화'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일찍부터 농생명산업의 부가가치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7년부터 농생명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기관의 이전에 주력해온 전북은 그동안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 연구단지, 농업실용화 재단 등을 잇달아 유치, 순조롭게 조성 작업을 밟아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기반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익산시 왕궁면 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100여개가 넘는 국내외 대형 식품업체와 연구소 등이 2016년부터 들어서게 된다. 600여여원이 투입돼 김제시 일대 54.2ha에 조성 중인 민간육종 연구단지 역시 육종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대거 입주해 국내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오는 2015년까지 농촌진

흥 등 6개 농업관련 연구개발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농생명 산업을 꽃피울 최적지로 우뚝 솟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처럼 중자에서 식품까지 구축된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과 새만금 배후단지에 들어설 첨단 농업단지(3335ha)의 생산물들은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을 통해 동북아시아 각국으로 수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024년 농생명 산업의 해외 수출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농생명 분야를 대표적인 창조경제 성공모델로 육성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한옥마을서 난중일기 쓰기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성용 이순신 프로젝트'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가로 30m, 세로 50m 크기의 대형 천 위에 난중일기를 직접 붓으로 쓰고 있다. /연필뉴스

단신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고전읽기 수강생 모집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4번째 고전읽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중용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4월 3일 '중용의 길'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총 12강으로 이뤄지며, 강의는 소헌성전주대 한문교육학과 교수가 맡는다. 수강신청은 연수원 홈페이지(dongheon.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수강인원 40명). 수강료는 12만 원. 문의(063-288-9242)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동헌에서 고전읽기' 프로그램으로 논어와 노자를 진행해 왔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남원보건소, 지역아동센터 26곳과 업무협약

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는 12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컴퓨터 활용을 하는 26개소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보건소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기관과의 꾸준한 업무협약으

로 정신건강에 대한 총출한 안전망을 구축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남원=백성기자 bs8787@

정읍시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 선정

정읍시가 교육부 주관의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

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모사업과 별개로 11억1500만원을 확보해 올해 청소년 보호와 지원, 육성, 개발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청소년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대, 목조건축·한옥건축 교육생 모집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있는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남해경 교수)은 제4기 목조건축·한옥건축 교육생을 모집한다. 양성사업단은 최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3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량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생 30명과 한옥건축 전

문인력 교육생 3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미취업자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9개월간 소양(10%)·이론(20%)·실습(70%)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063-561-5206) /고창=음창영기자 cy0370@